

“코로나 극복에 기업역할 컸다”... JY 사면은 원론적 답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文 대통령, 4대그룹 총수와 오찬

최태원 회장 ‘JY 사면’ 건의하자 김기남 부회장, 총수 필요성 언급 文 대통령 “고충 이해한다”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내 4대 그룹 대표와 만난 가운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 하는데 있어 4대 그룹 역할이 컸다”며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약 44조원(400억달러)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4대 기업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은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에 화답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검토’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 오찬 겸 간담회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가 마련된 데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이호승 정책실장. /뉴시스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 기여가 컸다”고 말했다.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하고 ESG 경영에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4대 그룹 대표들은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이 없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

만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Creative Thinking(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최 회장 발언에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또 다른 대표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이어서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제 5단체장 건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한 뒤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긍정, 부정, 어떤 쪽에 공감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며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다.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재계와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진 외국 정보뿐 아니라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는 만큼 ‘호혜적으로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로 전해진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편법 골프장, 영업정지 등 단속 목소리

» 1면 ‘코로나 특수’서 계속

지난해 영업이익률 40.5% 국회선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레저산업연구가 발효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169개의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0.5%로 2019년의 33.2%보다 7.3%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매출액 증가율은 21.2%로 레저산업연구소는 골프장의 주된 수입원인 입장료와 카트비가 코로나19 특수로 크게 오른데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혜택도 받는다. 지난 1999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박세리 선수의 1998년 세계대회 4회 우승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준 것.

대중제 골프장은 현재 취득세 4%(회원제 12%), 재산세 0.2~0.4%(회원제 4%)를 할인 받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다. 회원제 골프장이 증과세를 적용받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과세를 받는다.

정책적 지원에 2000년대 후반 40개소였던 대중제 골프장은 2019년 330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들이 받는 세금감면액

도 821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납부액 5913억 원보다 더 많다.

지난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양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대중골프장 실태고발 및 대책마련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골프장에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부회장은 “골프장이 갖는 여러 순기능적인 측면을 도외시키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갖는 문제점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부는 골프장의 순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민 소득이 3만불이 넘는 시대임에도 아직까지 골프에 대해서만은 1만불 미만 시대에 갖혀있다”고 반박했다.

골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국회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 양경숙 의원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재 소관위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의 골프장 출입 및 검사를 가능케 하고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 회원제로 영업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만들기!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추진

안전문화 3·3·3 운동에 따른 3대 분야별(가정·학교·직장)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통한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제3호 광주광역시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 선정시기** 2021. 12.
- 선정대상** 3개 분야
 - 안전마을 : 96개동
 - 안전학교 : 314개 학교(초·중·고)
 - 안전기업 : 1,126개소(제조업 766, 건설업 360)
 - ※ 재해빈도가 높은 제조업, 건설업 20인 이상 업체
- 선정규모** 6개소(안전마을·학교·기업 각 2개소 내외)
 - ※ 신청상황에 따라 분야별 선정 개소 수 변경 가능
- 선정방법** 안전마을 :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안전학교·기업 : 정량평가 50% + 정성평가 50%
- 예산액** 총 60백만원
- 지원내용** 안전인증서 수여, 명판 제막식,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인증서 수여 : 분야별 인증(광주광역시장)
 - 인증명판 제막식 개최
 -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 10백만원
 - 안전마을·학교 : 2천만원 상당 안전시설물 설치(A/S 포함), 안전컨설팅 무상지원
- 공모접수** 2021. 11월경
- 접수 및 문의** 분야별 담당부서
 - 안전마을 : 자치구 안전총괄 담당부서 (T. 동구 608-2805, 서구 360-7056, 남구 607-2951, 북구 410-8480, 광산구 960-3978)
 - 안전학교 :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T. 380-4874)
 - 안전기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T. 949-8704)
 - ※ 시 총괄부서 : 안전정책관실(T. 613-4933)

광주광역시 GWANGJU CITY